

제4호
(Vol. 4)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뉴스레터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산업학과 학과장 김기성 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 정보기술과 바이오기술 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보건의료산업은 건강수명의 연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학과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산업 각 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학과로 체계적이고, 다학제적인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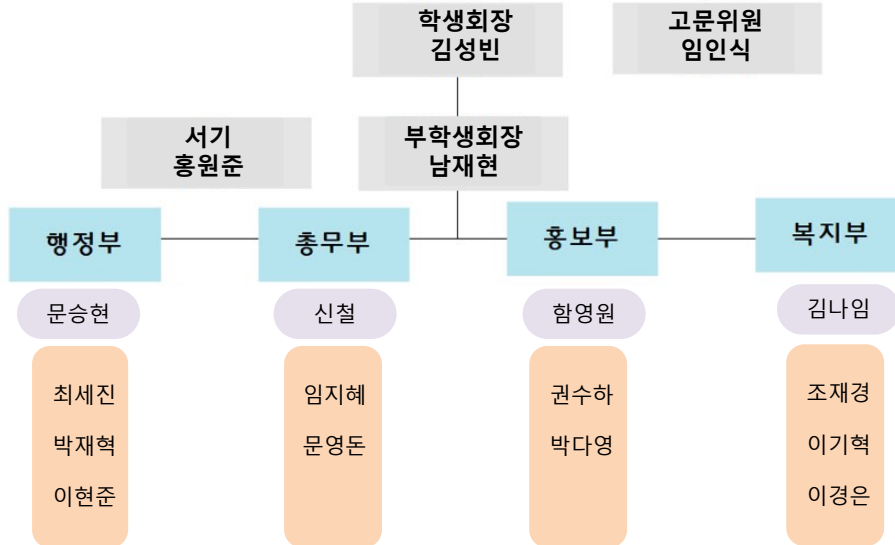
이번 제4호 뉴스레터도 학과 기자단과 교수님들이 하나가 되어 학과 주요소식, 보건의료산업 동향, 기본단위 재정의 관련 특집 기사, 실습 및 취업 노하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과 모든 구성원과 학부모님,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기업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산업학과 학과장 올림

2018학년도 학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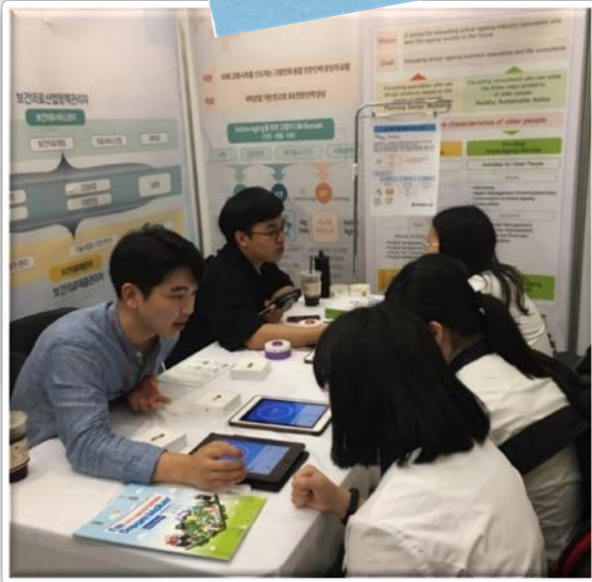


[보건의료산업학과 기자단 '혜움누리']



서울진로직업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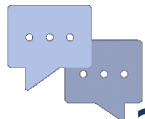
보건의료산업학과는
2018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진로직업 박람회에서
학과 홍보를 진행하였다.
보건의료산업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비전을
설명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2018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에서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우리 학과도 부스를 운영하면서 미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의료산업의 전망을 설명하고, 학과 홍보도 하였다.



2학기 개강총회

2018년 8월 29일에 2학기 개강총회가 열렸다. 학과 모든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계 방학 동안의 학습 결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학기 일정과 전공 수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2학기 실습발표회

2018년 9월 11일에
2학기 실습발표회가 진행되었다.
C&R RESEARCH, 창원 중앙병원,
PCL,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쿱메디컬 코리아, 사이넥스,
차바이오F&C, 차움 삼성분원,
차케어스, 메인텍 등 하계방학 동안
실습에 참여한 총 26명의 학생들이
실습 경험과 소감을 발표하였다.



대동제

2018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소확행을 주제로 대동제가 열렸다.
우리학교 동아리와 함께 풀킴, 흥진영,
일나티 DJ의 공연으로 축제가 절정에
달했다. 우리 학과는
'오모이데: 추억'
부스를 운영하며
친목을 다졌다.



2018년 진로체험 페스티벌



2018년 10월 24일에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포천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우리 학과는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건의료산업학과를 소개하고,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보건의료산업의 밝은 미래에 대한 이해를 북돋았다.

졸업생/시크릿가든 간담회

2018년 10월 24일에 졸업생 간담회와 시크릿가든 간담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졸업생 12학번 조재호 선배가 후배들에게 재학생 시절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취업 성공 비법도 공유했다. 이어서 진행된 시크릿가든 간담회에서는 학과 모든 구성원들이 친목을 다졌다.





21주년 개교 기념식

2018년 10월 26일은 우리학교 설립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현암기념관에서 총장님 이하 학교 주요 구성원들이 함께 기념식을 진행했다. 우리 학과 16학번 함영원 학생이 모범 학생 표창을 받아 우리 학과에게는 두 배로 뜻 깊은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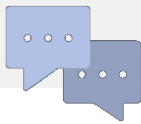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견학

2018년 11월 22일에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견학했다.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관련 기업을 지원하여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함께 견학하면서
보건의료산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졸업생 특강

2018년 12월 5일에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12학번 지태영 졸업생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지태영 졸업생은 후배들에게 의료기기산업협회를 소개하고, 입사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노력, 그리고 후회 없는 학교 생활을 하는 방법에 관한 꿀 팁을 알려주었다. 특강이 점심 시간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특강 종료 후 재학생들은 보건의료산업의 밝은 미래와 비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졸업 후 진로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



2018년 상반기 보건의료산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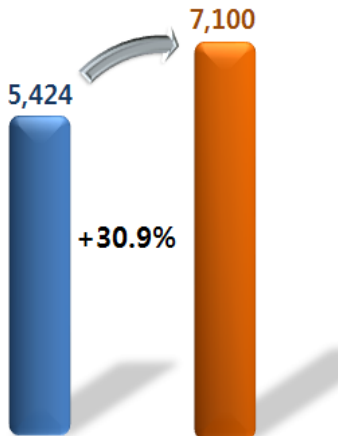


전반적 성과

2018년 10월 19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1월-6월) 보건의료산업의 수출, 매출, 고용 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9%가 증가한 71억 달러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7억 달러를 기록했다. 매출은 보건의료산업 관련 상장기업(182개) 기준, 매출액은 1조 3천억 원 증가, 영업 이익은 529억 원이 증가하였다. 고용의 경우, 2017년 말 보다 2만 4천명이 증가하여 약 85만 3천명에 달했다.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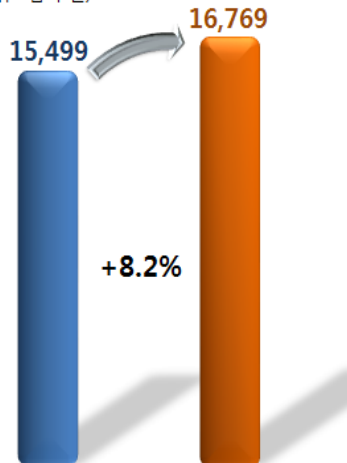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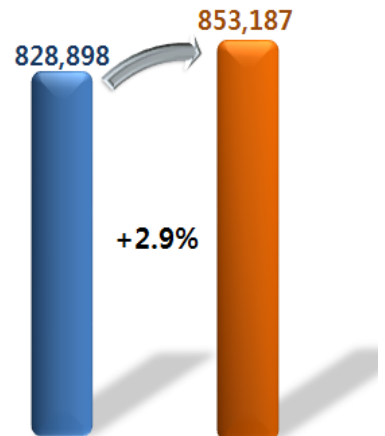
(단위 : 십억 원)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고용

(단위 : 명)



2017년 말 2018년 상반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2)

보건의료산업 동향



의약품 산업 성과

2018년 상반기 의약품 관련 수출은 22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가 증가했다. 수출 상위 5개국으로는 독일(2억 5천만 달러), 일본(2억 3천만 달러), 중국(2억 달러), 터키(1억 9천만 달러), 미국(1억 8천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36억 5천만 달러로 30.7%가 증가했다.

[의약품 수출입 현황]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체	1분기	2분기	전체	1분기	2분기
수출	1,685 (5.3)	759 (11.2)	926 (0.9)	2,241 (33.0)	1,010 (33.1)	1,230 (32.8)
수입	2,793 (6.2)	1,322 (11.1)	1,471 (2.2)	3,649 (30.7)	1,582 (19.7)	2,067 (40.5)

비고: 단위(백만 달러),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4)

보건의료산업 동향



의료기기 산업 성과

2018년 상반기 의료기기 관련 수출은 1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3%가 증가했다. 수출 상위 5개국은 미국(2억 9천만 달러), 중국(2억 7천만 달러), 일본(1억 2천만 달러), 독일(8천만 달러), 러시아(7천만 달러) 순이었다. 수입은 19억 5천만 달러로 11%가 증가했다.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체	1분기	2분기	전체	1분기	2분기
수출	1,463 (11.5)	676 (9.7)	787 (13.1)	1,658 (13.3)	786 (16.2)	873 (10.8)
수입	1,756 (8.4)	873 (10.9)	882 (6.0)	1,948 (11.0)	949 (8.7)	999 (13.3)

비고: 단위(백만 달러),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5)

보건의료산업 동향



화장품 산업 성과

2018년 상반기 화장품 관련 수출액은 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6%가 증가했다. 수출 상위 5개국은 중국(13억 3천만 달러), 홍콩(7억 6천만 달러), 미국(2억 5천만 달러), 일본(1억 5천만 달러), 태국(9천만 달러) 순이었다. 수입은 8억 2천만 달러로 6.8%가 증가했다.

[화장품 수출입 현황]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체	1분기	2분기	전체	1분기	2분기
수출	2,276 (18.6)	1,153 (34.4)	1,123 (5.8)	3,201 (40.6)	1,461 (26.7)	1,740 (55.0)
수입	768 (7.7)	379 (7.1)	389 (8.2)	820 (6.8)	404 (6.5)	417 (7.1)

비고: 단위(백만 달러),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6)

[참고문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8)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 보건의료 일자리 작년 말 대비 2만 4천명 증가", 10월 19일 보도자료,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산업 기술창업 펀드 지원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분야 창업 촉진을 위해 약 300억 원 규모의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를 조성하여 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의 18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출자하고, 120억 원은 민간 자금 유치를 통해 조달된다. 혜택은 주로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엑셀러레이팅 전략 도입 등에 먼저 돌아갈 예정이다.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이란?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start-up)을 대상으로 창업교육/멘토링/투자홍보를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프로그램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8) "보건산업 초기 창업기업 자금조달 쉬워진다", 10월 29일 보도자료,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마이크로바이옴 특허 출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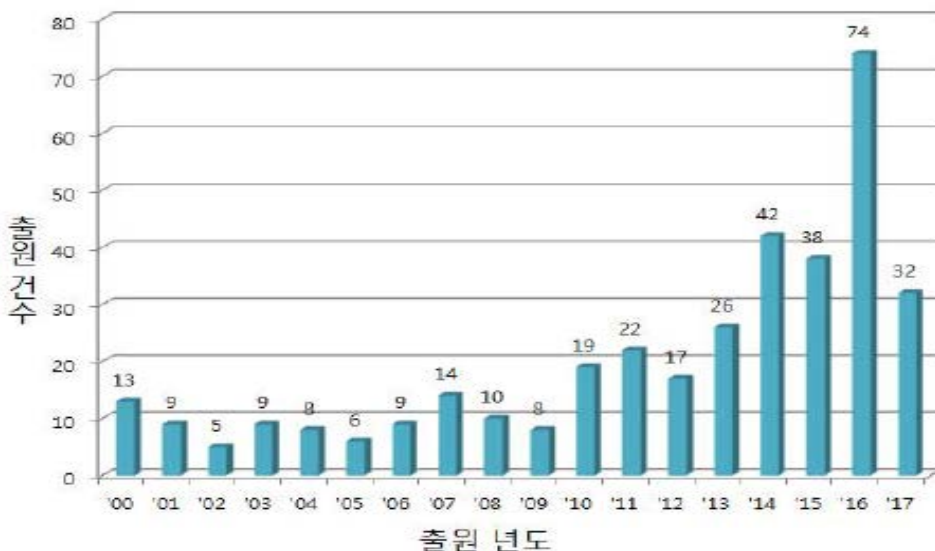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포함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보건의료의 핵심 분야인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특허출원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총 361건이 성사되었는데 특히, 최근 5년 동안 그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이란?

인체에 서식/공생하는 미생물 군집의 유전 정보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 도입으로 미생물 유전체 데이터베이스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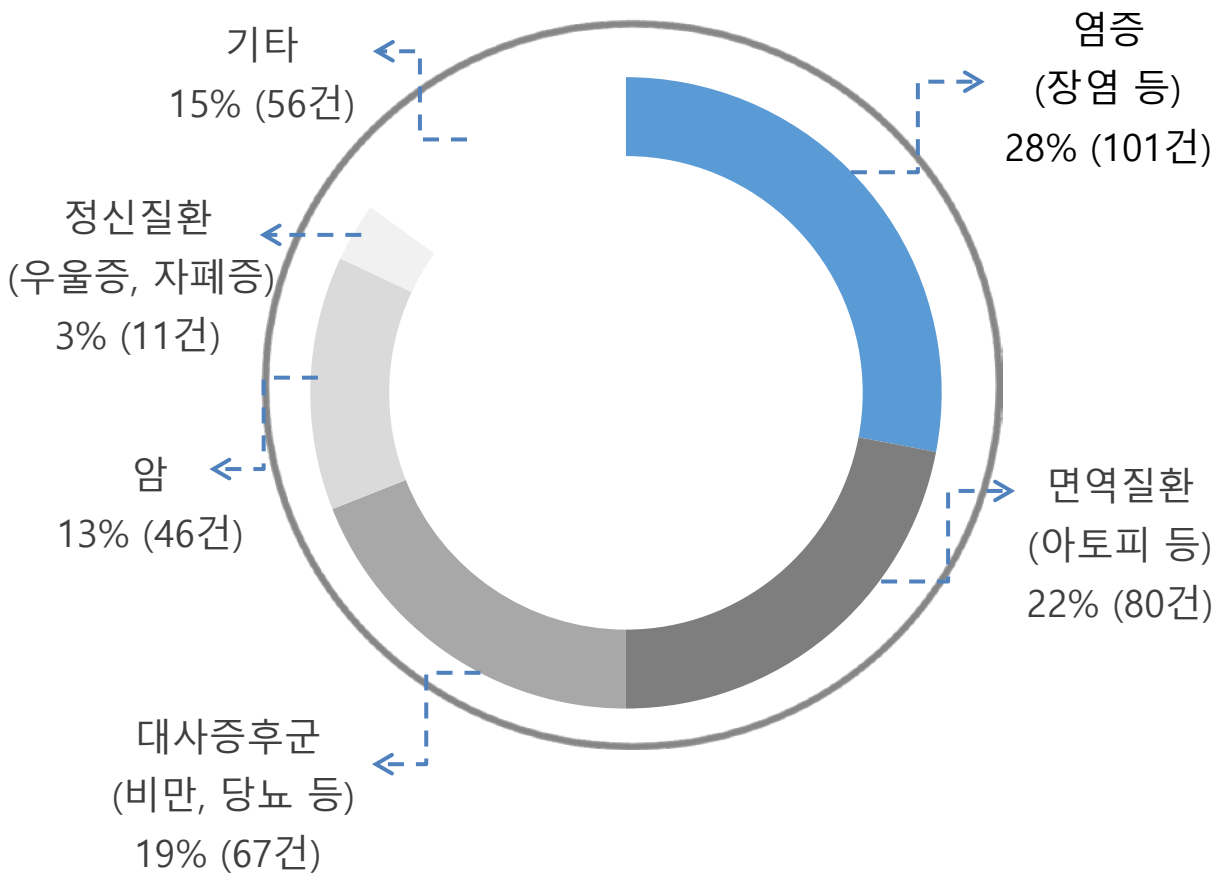
[마이크로바이옴 연도별 출원 동향]



보건의료산업 동향

특허 출원 내용을 질환별로 보면, 장염 같은 염증 관련 특허가 101건(28%), 면역질환 관련 특허가 80건(22%), 대사증후군 관련 특허가 67건(19%), 암 관련 특허가 46건(13%), 정신질환 관련 특허가 11건(3%)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 질환 별 출원 동향]



출처: (특허청, 2018: 5)

보건의료산업 동향

앞으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보건의료 시장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치료제 시장은 2024년까지 약 94억 달러까지 확대되고, 진단분야는 2019년에 상업화되어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확대 예상 규모]



출처: (특허청, 2018: 5)

[참고문헌]

특허청(2018)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맞춤형 헬스케어는 내 몸안의 미생물 정보로부터!-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특허출원 증가-", 11월 15일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특허청.

2018 바이오 혁신성장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2018 바이오 혁신성장대전' 을 개최했다. 약 57개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바이오 관련 성공 사례를 전시함으로써 학생과 지역 주민의 바이오 원리 이해를 돕고 관련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기관) 용도

전시물

내용

(아이크로진)
유전자
검사 서비스



2018년 Bio USA에서 전시했던 제품으로 정밀의료 시장 선점을 목표로 국내외 상용화 예정

(힐세리온)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세계 최초의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로 나스닥 상장사와 5년 동안 500만 달러의 공급 계약이 체결된 제품

(아이센스)
연속 혈당 측정기



우리나라 최초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개발해 최근 뉴질랜드 정부와 5년간 360만 달러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제품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6)

보건의료산업 동향

(기관) 용도

전시물

내용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치료제



2012년에 상용화된 카티스템은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제 중 최초로 연 매출 100억을 달성한 제품으로 전국 490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임상 2상까지 완료

(실라젠)
면역 항암제



글로벌 임상 3상중에 있는 펙사벡은 성공 시 주요국 시장 점유율 5% 달성을 전제로, 10년 기준 약 25조원 가치로 예상됨

(제넥신)
DNA 치료백신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중인 제넥신의 DNA 치료 백신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와 병용이 가능해 시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6)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2018 바이오 혁신성장대전」개최(11.28-29)-국민과 함께 바이오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잔치 한마당-", 11월 27일 보도자료, 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10일, 제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발전전략은 건강수명 증대, 일자리 창출, 기술 수준 향상 목표 달성을 통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설정한 추진 전략은 다섯 가지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수명 ('15) 73세 → ('22) 76세• 일자리 ('16) 13만명 → ('22) 18만명• 기술수준 ('16) 77.5% → ('22) 80%
추진 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②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③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④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⑤ 헬스케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출처: (보건복지부, 2018: 1)

보건의료산업 동향

첫째,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약 300명의 암생존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의료/유전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헬스케어 빅데이터 표준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 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약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며, 이를 활용하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신약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차세대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임상시험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2021년부터 차세대 임상시험 관리시스템(CTMS)을 개발해 상이한 임상시험관리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이다.

임상시험관리시스템 (Clinical Trial Management System, CTMS) 이란?

임상시험센터별 임상시험 자원 표준화/공동 활용, AI 등 제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설계/환자 모집 등의 지원을 위한 플랫폼

보건의료산업 동향

넷째,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AI, 3D프린팅 등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한 범부처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사업에 420억 원을 지원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범부처 의료기기 R&D 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2조 8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섯째, 헬스케어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지방 거점 병원을 연계하고, 병원-기업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field lab)을 구축하며,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정례화를 통해 관련 정책 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8)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발표(12.10)-", 12월 10일 보도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4호 특집기사

기본단위 재정의

2018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된 제26차 국제도량형총회(CGPM) 결과,

질량(킬로그램, kg)
전류(암페어, A)
온도(켈빈, K)
물질의 양(몰, mol)

과 같이 총 4가지 물리량의 단위가 새롭게 정의되어 2019년 5월 20일('세계측정의 날')부터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제26차 국제도량형총회]



출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8: 9)

4호 특집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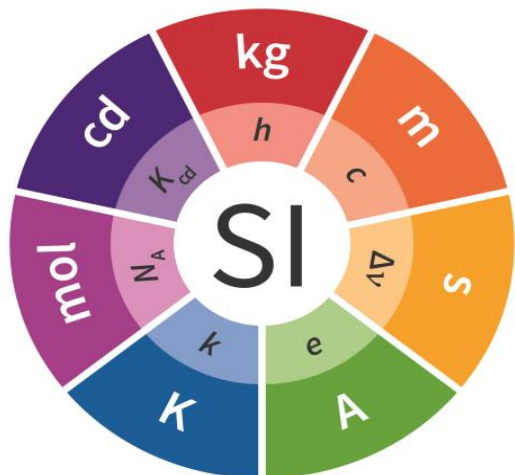
Q: 국제단위계란 무엇인가?

A: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란, 미터법에 기반하여 정립된 도량형의 체계로 초(s, 시간), 미터(m, 길이),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의 양), 칸델라(cd, 광도)와 같이 7가지 기본단위와 기본단위에서 파생된 22가지 유도단위로 구성된다. SI는 1960년 CGPM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는데 현재 미국, 미얀마,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법정 단위로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유도단위(Derived Unit)란?

기본단위가 아닌 유도단위들은 총 22가지로 기본단위의 곱과 나누기로 표현이 가능하다.
예) 힘(N)=kg·m/s², 일률(W)=kg·m²/s³,
주파수(Hz)=1/s

[국제단위계의
7가지 기본단위]



4호 특집기사

Q: 국제단위계는 어떻게 세계 표준이 되었나?

A: 1875년 5월 20일(세계측정의 날), 미터법의 실용성과 체계성을 인정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17개국이 미터협약(Metre Convention)을 체결함에 따라 측정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창설되었다. 이후 1960년에 개최된 제11차 CGPM에서 SI가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은 미터협약에 1959년에 가입하였고, 1964년의 계량법을 근거로 미터법을 전면 실시하였다.

Q: 왜 새롭게 정의되었는가?

A: SI는 불변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인공 물질을 기준으로 한 정의는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889년에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를 기준으로 정의되어 온 킬로그램의 경우, 원기의 질량이 수십 마이크로그램(μg) 변화하여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암페어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모호한 정의 때문에, 켈빈은 물의 삼중점이 동위원소의 비율에 따라 변화하는 불안정성 때문에, 몰은 탄소의 질량에 기반하고 있어 국제 킬로그램원기의 변화에 따른 영향 때문에 기존 방식을 변경해야만 했다.

4호 특집기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킬로그램원기]



출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8: 11)

Q: 기본단위 재정의 이후 국제단위계 체계는 어떻게 변하는가?

A: 변화의 핵심은 기존 기본단위 정의에 기본상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킬로그램에는 플랑크 상수(h)를, 암페어에는 기본 전하(e)를, 켈빈에는 볼츠만 상수(k)를, 몰에는 아보가드로 상수(N_A)와 같이 고정된 값을 이용하여 재정의함으로써 불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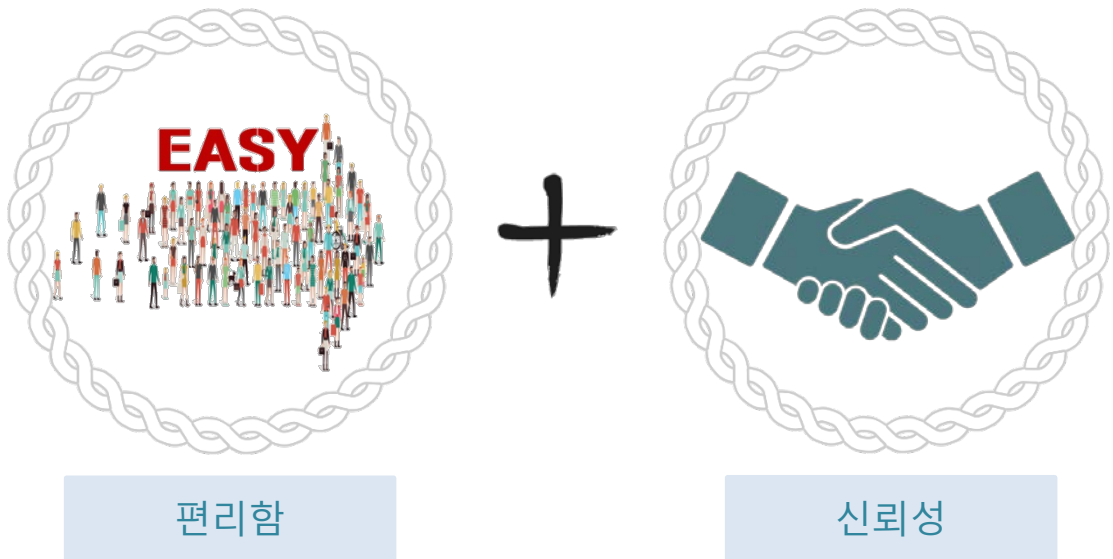
측정내용	기호	채택연도
시간(초)	S	1967년
광도(칸델라)	cd	1979년
길이(미터)	m	1983년
질량(킬로그램)	kg	
전류(암페어)	A	2018년
온도(켈빈)	K	
물질의 양(몰)	mol	

출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8: 5)

4호 특집기사

Q: 재정의의 주요 효과는?

A: 기본단위의 불변성을 확보함으로써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향상된 측정 신뢰도는 미세한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보건의료 및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재정의가 일상생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측정 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18) "단위 재정의' 최종 의결... 불변의 단위 시대 열렸다", 11월 16일 보도자료,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CGPM(2018) "Resolutions Adopted", (<https://www.bipm.org/utils/common/pdf/CGPM-2018/26th-CGPM-Resolutions.pdf> , 2018년 11월 13일 접속).

그림 "모든 사람 모든 시대를 위한 단위", 일러스트 최영미, https://www.kriss.re.kr/standard/krisstory_view.do?seq=2772

최재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2017년 8월에 졸업한 12학번 최재균 입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의료 정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취업준비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A: 재학생 때 의료기관 취업을 목표로 공공 의료기관, 병원에 관한 전공 위주로 수강을 하였고, 자격증/외국어 점수 등은 공공기관 지원 시 필요한 수준으로 준비했습니다. 휴학하거나 방학 동안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습을 통해 병원의 다양한 부서(원무, 총무, QS팀)에서 인턴과 실습을 통한 업무 경험으로 현장을 더 잘 이해하고 실제로 요구되는 능력을 미리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Q: 현재 업무 수행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의료 정보는 환자진료, 병원경영, 의학연구, 보건정책 수립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DB관리 능력입니다.

Q: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A: 보건의료산업학과의 하계, 동계 실습이 재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희망 진로 분야가 있다면 신청하여 업무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림대학교의료원



구본경 (셀트리온)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졸업생 14학번 구본경입니다.

저는 셀트리온 품질본부 문서관리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문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발행/관리하며 전 사원의 GMP 교육프로그램 운영, 품질관리 부서의 보고서 및 기술문서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Q: 취업 준비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A: 전공 수업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배웠고, 3학년 여름 방학에 했던 의료기기 회사 실습을 통해 마케팅, 영업, 인사부서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면접과 실제 회사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기업 취업을 준비한다면 수시 채용을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채용이 모집하는 부서나 인원은 많지 않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공채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Q: 현재 업무 수행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약을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서 발행/검토 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서는 보통 영어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 실력은 필수입니다.

Q: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A: 졸업하고 가장 후회가 되었던 것은 입학 때 1학년은 놀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마냥 놀았던 것입니다. 3/4학년 때는 전공 수업 위주로 듣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격증/어학능력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인 자격증, 어학성적을 1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하면 조금 여유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갈팡질팡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2학년 때 제약 분야로 제 목표를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정해지고 나니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분야가 좋대’라고 해서 자신의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는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승현
(사이넥스)



Q: 해당 기업으로 실습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A: 군 복학 후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가 의료기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기기를 기획 및 연구개발 단계부터 시장에 나가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이넥스(Synex)'로 실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업무를 담당했나요?

A: 먼저 의료기기 GMP 부서에서 의료기기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내 GMP 인증을 받는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유효성 검사와 관련하여 변경한 문서 양식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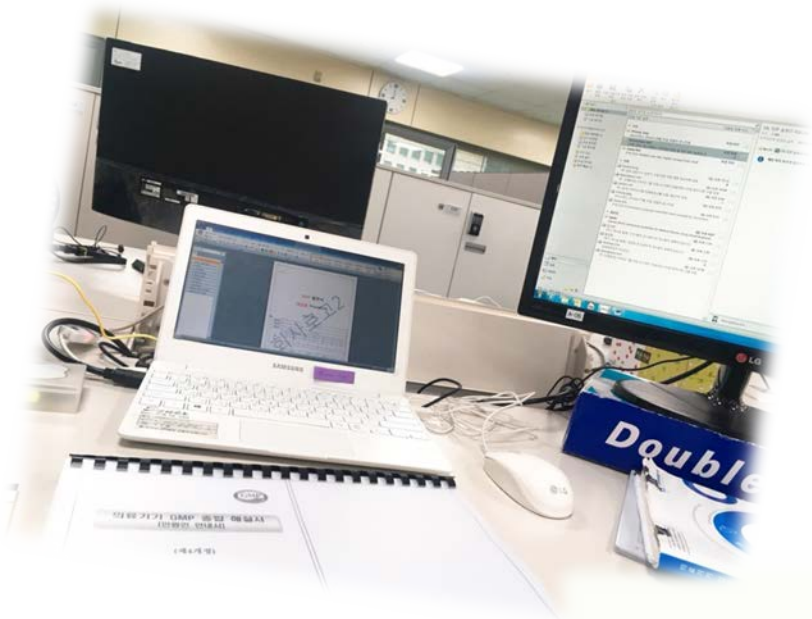
Q: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A: 저는 앞으로 의료기기 RA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국가자격증으로 승격한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어와 중국어 공부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Q: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A: 아직은 보건의료산업이라는 전공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과 수업과 교수님들 말씀을 듣다 보면 끌리는 분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로 도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컴퓨터 수행능력과 외국어를 잘하면 더 좋습니다.



Synex
Healthcare Market Access

함영원 (메디게이트뉴스)



Q: 해당 기업으로 실습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A: 저는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복수전공을 하면서 보건의료산업과 의료홍보를 융합 할 수 있는 진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건의료 전문 언론사로 실습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주저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Q: 어떤 업무를 담당했나요?

A: 미디어팀에서 총 4주간 실습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내근을 하며 보건의료정책이나 의료기기 등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요약했고, 매일 아침 보건의료 관련 주요 뉴스 클리핑 작업을 하여 관련 분야 지식을 쌓았습니다. 2주차부터는 기자님들과 동행하여 각종 기자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 인터뷰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외근을 다녀온 후에는 당일 기사를 직접 작성하여 올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Q: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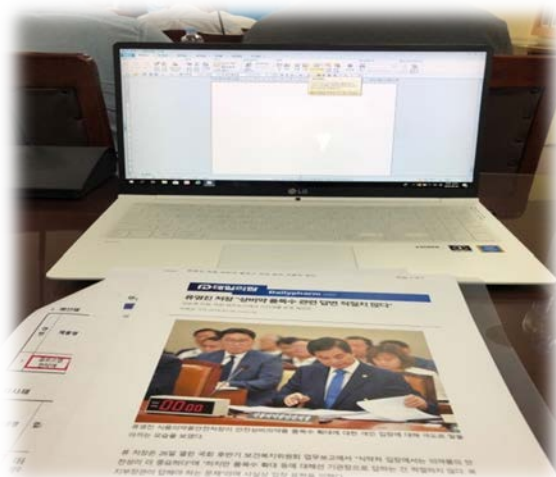
A: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기업 홍보팀 또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전공 수업을 이수하고, 컴퓨터 활용능력과 같은 필수 자격증도 취득할 것입니다. 또한,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공부할 계획입니다.

Q: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A: 보건의료산업이라는 분야는 제약, 의료기기, 글로벌헬스케어, 화장품 등 분야가 굉장히 넓고 발전 가능성도 큼니다. 아직은 뭘 배우는지, 어떤 적성이 나한테 맞을지 모르겠고 마냥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여러 전공들을 듣다 보면 분명 본인이 잘 하고, 관심이 가는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 진행하는 학과 실습, 차병원 실습, 학습반, 공모전 등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도전하지 못한 것들이 많고 이제 와서 많은 후회가 됩니다.

MEDI:GATE NEWS

1시간느린뉴스 1꼭지줄인뉴스 | 모두함께행복한의료



정승연

(쿡메디칼코리아)



Q: 해당 기업으로 실습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A: 글로벌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분야 둘 중에 진로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며 체험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의료기기 기업의 인허가부서로 지원을 했고, 여의도에 위치한 쿡 메디칼코리아의 RA(Regulatory Affairs, 인허가)부서에서 실습 했습니다.

Q: 어떤 업무를 담당했나요?

A: 회사가 식약처로부터 제품을 승인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해주는 의료기기 제품 허가증을 한글판에서 영문판으로 번역하는 업무와 제품 사용용도서(Instruction for Use; IFU)의 영문판을 한글판으로 번역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Q: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A: 실습을 하면서 진로 방향을 잡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습 때 맡았던 업무가 저에게 정말 잘 맞고 즐거워서 계속 인허가 분야 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고 RA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더 많은 체험을 위해 다른 인턴 기회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Q: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A: 만약 진로를 아직 못 정한 친구들은 실습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참여 할 것을 추천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진로고민을 하는 것보다 직접 여러 분야의 일을 해보면서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키워드는 '영어와 의학용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부서 상사님들이 직원의 가장 중요한 역량을 '영어 및 제품 이해도'라 보시며 업무의 대부분이 영어 및 의학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입사 면접 때 제품 용도설명서를 주며 번역을 시켜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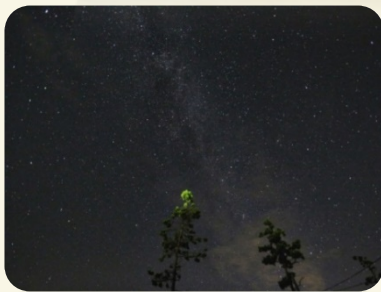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18학번 박재혁 학생의
비금도와 대구 여행기를 소개합니다^^

✈ 비금도

무더운 열기와 자외선이 쏟아지는 여름!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전라남도 목포에서 배타고 1시간이 소요되는 '비금도'로 여행을 떠났다.

무더운 더위 때문에 해수욕장에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려와는 달리 명사십리 해수욕장에는 사람보다 게가 더 많이 보였다.



밤에는 영화에서 보던 쏟아질 듯한 별들이 서로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감성을 자극하여 쉽게 잠을 못 이루었다.

낮에는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의 해수욕장을 즐기고, 밤에는 별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시골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싶다면 비금도를 추천한다.

✈ 대구 여행

2018년 8월 21일, 2학기 개강을 일주일 앞 둔 무더운 더운 날
'대프리카'라고 불리던 대구에 중학교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

수성 유원지에서는 맑은 호수와 산책로의 조화를,
앞산공원에서는 산속을 걸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서문 야시장에서 더운 여름을 식히는 시원한 공연들과 함께
여러 가지 푸드트럭 음식을 맛보면서
바쁜 일상 속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대구 곱창골목에서는 곱창을 먹으며
왜 대구가 곱창으로 유명한지
알게 되었다. 개강 전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꿈 같은 시간이었다.



환한 도시 속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대구 여행을 추천하고 싶다.



베일리 어게인



2018년 11월 22일에 개봉한 라세 할스트롬 감독의 '베일리 어게인'은 반려견이 여러 주인을 만나서 살아 가는 다양한 삶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가 반려견의 시점에서 해석되고 전개되기 때문에 인간과 반려견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최근 많이 발생하는 동물 학대로부터 반려견 유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낱말 맞추기

	1.		2.		3.	
	4.	5.				
6.						
		7.				
8.	9.					

[가로 문제]

- 안정성이 없거나 안정되지 못한 상태
- 정한 시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을 때 시간을 연장해 계속 하는 경기
-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또는 그런 상태
- 너저분한 털을 다듬어 깨끗하게 만든 토란
- 감기를 치료하는 데 쓰는 약

[세로 문제]

- 금속을 가열하지 않고 상온이나 그에 가까운 온도에서 늘이는 가공법
- 부처를 모신 집
- 나라를 다스리는 일
- 덕망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아 세상일에 익숙한 어른
- 위기에 처해 있거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
- 가루/결정성 약을 눌러 둥글 넓적한 원판이나 원뿔 모양으로 만든 약제
- 굵주림과 같은 말

낱말 맞추기 정답

	1. 냉		2. 불	안	3. 정	
	4. 연	5. 장	전		치	
		자				
6. 위	험					
기		7. 알	토	란		
8. 감	9. 기	약				
	아					

출처: 네이버 가로세로 낱말퀴즈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뉴스레터 (제4호)

- 발행/편집장: 김기성
- 편집위원: 이신호, 김기성, 정미현, 박승민, 황혜주, 이평수, 한세미
- 작성: 보건의료산업학과 기자단
(함영원, 김현진, 이영인, 조효선, 박다영
박재혁, 박정찬, 이기혁, 이현준, 홍원준)
- 디자인: 이영인, 조효선
- 발행일: 2018년 12월 17일
- 발행처: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전화: 031-850-8942 / 팩스: 031-543-9917
이메일: qwertyc@chamc.ac.kr
홈페이지: <http://healthcare.cha.ac.kr/>